

윤석열, 선대위 드림팀에 '李 저격수' 윤희숙 영입 검토

(이재명)

후보 직속 '이재명 포퓰리즘 검증팀' 사령탑으로 거론
尹 "李 포퓰리즘 정책 검증·공격 역할... 정책 개발도"
불안한 '3金 선대위' 윤곽... '총괄' 김종인 추대 연기

'정권교체 드림팀'을 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이재명 저격수'로 윤희숙 전 의원 영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후보는 "당 원로, 유능한 청장년 인재가 모두 하나 되는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를 구축할 것이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22일 국회에서 처음으로 주재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최고위) 회의에서 "정권교체 열망은 같지만 우리 당과 함께하기를 주저하는 분들까지 모두 정권교체 전선으로 함께하는 선대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며 "경륜 있는 당 원로, 당내 유능한 청장년 인재를 모두 모아 당이 하나로 힘을 합쳐가는 선대위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1970년대생 여성 초선의원 출신인 윤 전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등을 거쳐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기본소득, 청년 세계여행비 100만원 지원 등 정책을 집중 비판해 '이재명 저격수'로 불려왔다. 8월 부친의 부동산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던지면서 "무혐의가 나오면 이 후보는 책임지고 정치에서 사라지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정치권에 의하면 윤 후보는 윤 전 의원을

후보 직속 '이재명 포퓰리즘 검증팀'(가칭) 사령탑으로 영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윤 후보 측은 "윤 전 의원에게 이 후보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검증 및 공격을 맡길 생각이다. 윤 후보 정책 개발도 함께 맡을 것 같다"며 "윤 전 의원이 합류 의사를 거의 굳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 후보 주변에서는 아예 윤 전 의원을 윤 후보 비서실장 또는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앉히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 공동선대위원장은 윤 전 의원 외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국 후사' 공동저자인 권경애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윤 후보는 최고위에서 "정권교체 이후의 안정적 국정운영까지 고려하기 위해선 국민 모두가 대선 캠페인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선대위 구성 자체가 국민통합 과정이 되어 할 것이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윤 전 의원 합류를 종용하는 듯한 발언을 거듭 내놨다.

한편 윤 후보는 최고위에서 "총괄선대위원장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삼입선대위원장은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와 이준석 대표, 후보 직속 새시대준비위원장은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맡는다"며 '3김 체제'를 공식화했다. 다만 "김 전 위원장)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모시는 부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사진 위 가운데)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아래 왼쪽부터 윤희숙 전 국회의원·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은 (김 전 위원장) 하루 이틀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하셔서 오늘은 삼입(선대)위원장 두 분만 (인사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은 '3김 체제'에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있다. 당초 자신을 선대위 '원톱'으로 기용하기로

해놓고 김 교수, 김 전 대표와 한 묶음으로 넣었다는 이유다.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이 김 교수 인선 때문에 시간을 달라고 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여러분이 취재해보시라. 저도 정확히는 모른다"며 즉답을 피했다.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이 제안한 입태회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선대위 총괄상황실장 기용을 조건으로 김 전 위원장을 설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은 당초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언급됐던 주호영 의원,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당내 중진들은 지역선대위원장에 임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주환 기자

'전국민 선대위' 띄운 이재명 "회초리 맞겠다"

'사과만 네 차례 언급... "부동산·청년·내로남불 등 반성"
與, 선대위 재구성 전권 위임... 20·30 중용 등 개편 전망

당으로부터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전권을 위임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선후보는 22일 '전국민 선대위' 첫 회의에서 "새로운 출발은 성찰과 철저한 반성에서 시작한다"며 당과 선대위의 쇠신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청년간담회 형태로 열린 회의

에서 "평소 못 보던 새로운 분들을 많이 보게 돼 반갑고 회의 자체가 활기 있는 것 같다"며 "역사상 가장 취약한 계층을 만들어버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 무한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오늘은 민주당 1일차라고 생각한다. 저와 우리 당은 따끔한 회초리를 맞을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였다.

이 후보는 회의에서 '사과만 네 차례 외쳤다. 그는 "새로운 변화보다는 그동안 체제에 젖어가지 않았나 싶다. 그 점에 대해 저부터 반성하겠다. 철저하게 모든 부분에서 자기반성을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새로운 변화·혁신에 대한 열망을 담아 이재명의 민주당, 새로운 민주당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180석 거대 의석에 걸었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 부

동산 문제,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고통 가중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내로남불식 남 탓이나 전 세계적인 현상 등 외부조건에 책임을 전가하려 했던 것도 반성한다"고 했다.

또 "기성세대는 고도성장 사회에서 많은 기회를 누리고 살았고 기득권을 차지했지만 청년들은 기성세대 책임으로 저성장 사회에서 작은 기회 때문에 격렬한 경쟁을 해야 한다.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도 언급했다. 이후 보는 "거대 이권사업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점만 강조했지만 민간 비리 잔치를 예방하지 못했느냐는 지적에 '책임 없다'고 말한 것 자체가 잘못임을 인

정한다"며 "저항과 방해조차 넘어 국민 기대를 충족시켰어야 한다. 부족했던 것 인정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남(21일)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에게 선대위 쇠신 및 재구성 전권을 맡기는 방안을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이 후보는 자신의 SNS에서 "조속히 쇠신 방안을 만들어 집행하고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고 했다.

이후 선대위는 '전국민 선대위'로 이름을 바꾸고 회의 방식도 청년간담회 형태로 수정했다. 향후 선대위 개편 초점은 △전(全) 의원의 현장행 △선대위 경량화 △20·30 및 실력파 등용 등에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오주환 기자

뉴스드립

워킹맘 앞을막은 이재명... 네티즌 "악어의 눈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2일 "국민 여러분들의 새로운 변화·혁신개혁에 대한 열망을 담아 이제 이재명의 새로운 민주당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전국민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청년과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대전환' 간담회를 갖고 '전면쇄신'을 선언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불참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전국민 선대위를 열고 여성·직능단체 등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chua*** 악어의 눈물. 난 민주당의 오만방자함에 지난 5년간 치가 떨렸다. 무능하고 고집불통인 대통령과 내로남불뿐인 180석의 거대여당.

sjba*** 아직도 질질 짜대는 쇼로 선포하고 있다. 철지난 감성팔이 정치 그만해라.

文·與 지지율 2주 연속 상승... "39%는 한국인 아닌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15~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7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2일 공개한 11월 3주차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여당 지지율이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9.5%로 2주 연속 오름세를, 부정평가는 57.1%로 2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yh73*** 文 잘했다고 하는 저기 39%는 대한민국 사람 아닌가 보네.

lovi*** 아직도 상승한다니. 아니 아직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khig*** 가계부채가 OECD 최고 수준인데 이것이 잘하는 것이구나.

눈 노화, 걱정 마!

눈 노화, 걱정 마!

늦기 전에 지킨다

눈 건강 프로젝트
아이클리어 루테인지아잔틴

아이클리어는 중근당건강의 눈 건강 전문 브랜드입니다.

- 황반의 중심부부터 주변부까지 눈 노화 집중케어!
- 황반 전체에 존재하는 루테인 + 황반 중심부 집중된 지아잔틴
- 노화로 인해 감소되는 황반색소 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줌

구매문의 **1811-0884**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 제조원(주)서풍 / 판매원: 중근당건강(주)